

봄나들이, 남도 미술여행 어때요?

담양 담빛예술창고 사진기획전

대담미술관 김도명 개인전

해남 미항사 자하루미술관 개관전

보성 우중미술관 단색·화조화전

전남문화예술재단 남도예술은행

내일 청산도 서편제 길서 특별경매



오는 9일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이 청산도에 개최된다. 사진은 '슬로우걷기축제'가 열리는 유채꽃밭 풍경.

따스한 햇살과 함께 철쭉이 고개를 드는 시기다. 벌써부터 봄나들이 행락객들로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분비기 시작한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며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전남지역 미술행사를 소개한다.

광주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은 매년 수백만명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다.

관방제림 인근 담빛예술창고는 수십년간 방치된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말마다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연주가 진행되고 정기적으로 한중교류전, 사진전 등 현대미술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5월1일까지는 사진기획전 '이미지의 스펙트럼'이 열린다. 김영태, 라규재, 정일, 박일구, 이정록, 안희정, 박세희, 박하선, 인준교, 리일천, 이설재 등 작가 11명이 참여했다.

참여 작가들은 뚜렷한 작업성향이나 주제 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번 전시는 최근 사진예술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다.

피사체간 공간과 원근감을 통해 추상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리일천, 현실과 가상을 아우르며 시간 흐름을 담아내는 김영태, 라규재, 박일구, 이설재의 색다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61-381-6444.

담빛예술창고에 약 15분만 걸어가면 죽녹원 바로 옆에 위치한 대담미술관이 나온다. 대담미술관에서는 김도명 개인전 '술에는 초어(草魚)가 산다'가 열리고 있다.

6월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미술관 내부와 뒷산에서 진행돼 곳곳에 설치된 작품을 찾는 재미가 있다. 김 작가는 골판지로 만든 향아리를 나무 주위에 설치해 마치 향아리에 나무가 심어진 모습을 연출한다. 문의 061-381-0082.

해남 미항사는 범정스님이 생전 "흙로 감춰두고 싶은 절"이라고 할 만큼 소박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땅끝 바다가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인상적인 이곳에 최근 미술관이 생겼다.

자하루미술관은 5월31일까지 '땅끝마을 아름다

운 절 미항사'를 주제로 개관전을 개최한다. 작가 32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미항사 장전 신화나 현재 모습, 풍경 등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목판화가 홍선웅은 장건설화를 판화로 표현했다. 작품 '미항사 장건설화'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 불상이 실어진 배, 경전을 싣고 소달구지를 모는 의조화상이 등장한다. 장건설화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동화를 읽는 듯한 소소한 재미를 준다. '미항사'(박방영), '달마산 미항사'(신태수) 등 작가들이 바라본 미항사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문의 010-3052-5870.

녹차밭으로 유명한 보성 우중미술관에서는 단색화와 화조화(花鳥畵)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5월31일까지 '단색화, 채움과 비움의 미'전과 '화조화-꽃으로 날아들다'전이 진행된다.

단색화전은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정상화, 김기린, 김창열, 진옥선, 김일권 등 작가 13명 작품 21점을 선보인다.

한국 생존작가중 가장 작품값이 비싼 이우환 '조용'을 비롯해 두가지색으로 자연과 빛을 표현하는 김일권 전남대학교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화조화전에서는 의재 허백련, 운보 김기창, 남농 허건 등 한국화 대가 10명 작품 19점을 볼 수 있다. 꽃, 풀, 새 등 같은 주제를 놓고 벌이는 대가들의 표현 기법을 비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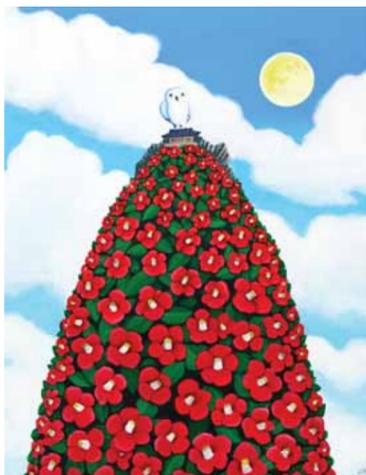
수목담체 기개가 돋보이는 남종화 '화조괴석도'(의재 허백련)와 화려한 채색이 눈길을 끄는 북종화 '화조도'(이당 김은호)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문의 061-804-1092.

매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문화예술재단 남도예술은행은 이달 유채꽃이 흐드러진 완도 청산도를 찾아가는다. 9일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이 열리는 서편제길에서 개릴라 그림경매를 진행한다.

예술은행 소장작품 25점을 10만~30만원대에 판매하며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도 곁들여진다. 남도 뱃새가 들락나는 미술작품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 문의 061-280-58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의재 허백련 작 '화조괴석도'



안윤오 작 '동백산 미항사'



병사성당



마리안느·마가렛 사택

소록도 병사성당·마리안느 사택 국가 문화재 된다

한센인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고흥군 소록도 병사성당과, 마리안느·마가렛 사택이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7일 소록도 병사성당, 마리안느·마가렛 사택,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등 3곳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병사성당은 소록도 한센인들이 생활했던 병사(病舍) 지역에 1961년 건립된 성당이다. 한센인들이 직접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해 벽돌을 만들어 지었다. 육체적·정신적 아픔을 치유하는 영적 장소가 됐던 곳으로, 소록도 병사 지

역 내 유일한 성당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은 1938년 건립된 벽돌 주택이다. 40여 년간 한센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하던 집이다.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인으로서 1962년과 1966년 각각 소록도를 찾아와 한센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눴다.

또 서울 남대문로 한옥 상가는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20세기초 벽돌로 지어진 한옥상가 건물이다. /김용희기자 kimyh@

국악 3대가 꾸미는

행복한 동행



이임례

이태백

이정은

전통문화관 토요일공연...내일 이임례 명창 가족 무대

'국악 3대가 꾸미는 행복한 동행.'

이임례 명창(광주서 무형문화재 제14호 판소리 강산제 보유자)과 아들인 아쟁 연주자 이태백(목원대 교수·한밭예술인단장), 국립국악고에 재학중인 손녀딸 정은양이 함께 무대에 선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일공연 '흥겨워라'에 3대 국악인을 초청,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여기에 이 명창의 조카인 이난초(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씨도 함께 무대에 선다.

세 사람은 전주 대사습놀이 장원 출신이라

는 공통점이 있다. 이 명창은 제19회 대회에서 명창부 장원을, 이태백 교수는 기악부 장원을 수상했다. 아쟁을 연주하는 정은 양은 올해 대사에서 학생부 현악 장원을 차지했다.

첫 무대는 이임례 명창의 강산제 판소리 '심청가'로 문을 연다. 이어 이정은 양이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들려주며 이난초·임현빈씨가 단막극 '춘향전' 중 '어서 상방' 장면을 선보인다.

이태백 교수는 '태평소를 위한 사물'을 연주하며 전 출연진이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부른다. 전석 무료.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8일~17일 '시간의 빛장이 어긋나다' 행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시, 퍼포먼스, 영상이 어우러진 '시간의 빛장이 어긋나다'를 8일~17일 예술극장 1등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집트 출신 독립 큐레이터 이자 타렉 아부 엘 페투가 중동의 예술을 전시, 퍼포먼스, 영상 등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전당과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예술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고 알리드 라드, 차오페이, 박찬경 등 현재 중동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17명의 작가들이 함께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1974년 바그다드에서 열린

'제1회 아랍 예술 비엔날레'와 1989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방가르드 전시'를 선보이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2022년에 개최될 '적도 컨퍼런스' 전시를 미리 선보인다.

극장1에서는 비주얼아트 전시와 퍼포먼스 공연이 진행되며, 민주평화광장 등에서는 자동차 오디오 사운드로 연출되는 전시와 공연을 선보인다. 타렉 등이 매일 전시 투어도 진행하며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판(www.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티켓 가격 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ttp://art.kjmedia.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 호남예술제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 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6년 4월 6일(수) - 4월 12일(화)

미술·작문 부문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의정상(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